

# KERI Brief

## 주요 신성장산업의 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tklee@keri.org)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월이 빈번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등 신성장산업에서도 중국의 약진은 두드러져 이 분야 세계 100대 기업의 수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중에서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 세계 100대 기업(2015년 자산기준)에 한국기업의 수는 각각 7개사, 2개사인 반면 중국기업은 각각 17개사, 20개사가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헬스케어 부문, 특히 헬스케어 장비와 제약 부문의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기업은 하

나도 없는 반면 중국은 각각 6개사, 20개사가 포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성장산업에서 100대 기업에 포함되어야 의미 있는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이들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우세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top 20 내의 global player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성장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별 100대 기업 내 국가 별 기업 수〉

산업 분류	100위권 내 주요 국가의 기업 수
시스템SW	한국(7), 중국(17), 미국(28), 일본(11)
응용SW	한국(2), 중국(20), 미국(47), 일본(3), 영국(5)
IT서비스	한국(1), 중국(7), 미국(45), 일본(6), 프랑스(7)
헬스케어 장비	한국(0), 중국(6), 미국(40), 일본(12), 이탈리아(6)
헬스케어 솔루션	한국(5), 중국(2), 미국(35), 일본(7), 프랑스(11)
바이오 기술	한국(4), 중국(13), 미국(51), 일본(0), 프랑스(6)
제약	한국(0), 중국(20), 미국(10), 일본(11), 영국(10), 독일(8)
생명과학 기구 및 서비스	한국(2), 중국(7), 미국(32), 일본(5), 영국(13), 프랑스(7)

주: 2015년 기준, 괄호 안은 기업 수

한편 기술적 우위 없이는 신성장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의 R&D 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한국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산업별로 100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과 해당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의 R&D 투자 비중 간에는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헬스케어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해외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바이오, 생명과학 등의 부문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높은 R&D 투자를 추진하는 해외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신성장산업에서의 적극적 R&D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낮은 부문에서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시스템SW와 같이 CR3가 거의 75%에 달하는 부문에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응용SW의 경우 시스템SW와는 달리 CR10도 약 32% 수준이므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확보 여지가 존재한다. 즉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전략적으로 응용SW와 IT서비스 부문에서의 성장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기업이 상위권 수준에 도달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아니라면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상품의 다양성이 높아 시장독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부문별 R&D 비중〉

	시스템SW	응용SW	IT서비스	헬스케어 장비
산업 평균	13.2	15.6	3.1	6.0
한국 기업	0.6	4.0	0.7	1.0
	헬스케어 솔루션	바이오 기술	제약	생명과학 기구·서비스
산업 평균	19.4	219.1	10.3	376.0
한국 기업	0.41	6.2	3.5	0.6

- 주: 1) 산업 평균은 각 산업의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구하였으며 R&D 비중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은 평균 계산에서 제외  
2) 한국기업의 값은 해당 산업에서 자산 기준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

## 1. 논의의 배경

□ 한국경제의 성장을 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주력산업의 부진에 있으며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

-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최근 수년 간 급속히 하락하여 2015년에는 거의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음.

- 게다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의 약진으로 한국 주력산업의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 품목 수가 한국은 정체 또는 감소(2014년 기준 64개로 전년도에 비해 1개 감소) 하는데 비해 중국은 큰 폭으로 증가(2014년 기준 1,610개로 전년도에 비해 75개 증가)

-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등으로 향후 주력산업의 수출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

□ 따라서 기존 주력산업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로는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산업이란 결국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체이므로 신성장동력의 창출은 새로운 산업에서의 기업의 성장을 의미

□ 따라서 개방된 시장과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일상화된 현재의 시장환경에서 성장동력의 창출이란 결국 성장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의미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신성장산업에서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분석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지도 - 기업 규모 분포, 시장집중도, 국가별 기업 수, 주요 기업의 경영지표 등 - 를 작성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 점검 및 장단점 분석을 시도하여 산업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센서네트워크(RFID) 등의 3개 산업에서의 세계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는 보다 세부적 산업으로 분류하여 전체적으로는 9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 기업 세부자료는 CapitalIQ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sup>1)</sup>

□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IT 혁신, 고령화 심화, 바이오 혁명 등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목 받는 산업들이며 또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이기도 함.

- 아래는 주요 성장산업에서의 한국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평가한 표이며 이를 기초로 CapitalIQ 데이터베이스와 매치가 용이한 산업을 선정<sup>2)</sup>

1) 분석대상 산업의 분류는 자료추출의 편의 상 CapitalIQ의 산업분류에 따랐음.

2)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자료 확보의 용이성도 상당히 고려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S&P CapitalIQ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산업 내 기업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고찰하고자 하는 산업이 동 데이터베이스의 산업분류와 매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기존 기업의 여러 생산품목 중 일부부인 경우가 많은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만 분리하여 기업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이런 산업의 경우는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예를 들어 <표 1>에서 '그린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기존 자동차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므로 '그린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취약한 신성장산업의 '기업지도'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을 점검하고 산업전략적 시사점을 찾는 데 의의가 있음.
- 기존 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산업 단위에서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수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 내 경쟁단위인 기업 간 비교를 통해 한국기업의 위상 및 선두 기업과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파악(기업 규모, 수익성, 안정성 등) 하고자 함.

- 특히 주요 제조업에서 한국을 추격 중이거나 추월한 중국이 이들 신성장산업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
-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신성장산업에서 '기업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표 1〉 성장동력산업 세계시장 경쟁력 평가

품목	세계시장 경쟁력		
	상	중	하
태양광		○	
이차전지	○		
ITS		○	
ESS	○		
LED 조명		○	
차세대 스마트폰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지능형 그린자동차			○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 의약품			○
차세대 TV	○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
연료전지	○		
풍력			○
폐기물 바이오		○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
기능성 나노필름	○		
제조업용 로봇			○
게임		○	
MICE		○	
스마트 그리드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해양플랜트	○		

자료: 이태규(2015)

## 2. 주요 신성장산업의 현황과 추세

### (1) 세계 소프트웨어산업

□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이어지는 ICT의 가치사슬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 특히 ICT 융합의 확산으로 새로운 시장이 계속 창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sup>3)</sup>

□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ICT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

- 특히 기기제조 경쟁력에 비해 매우 약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개선은 한국 ICT 산업의 시급한 과제

□ 2015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픽키지SW + IT 서비스)는 2014년 대비 4.4% 성장한 1조 1,240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4% 중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년 대비 4.4% 성장한 1조 1,734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어 2019년까지 1조 3,419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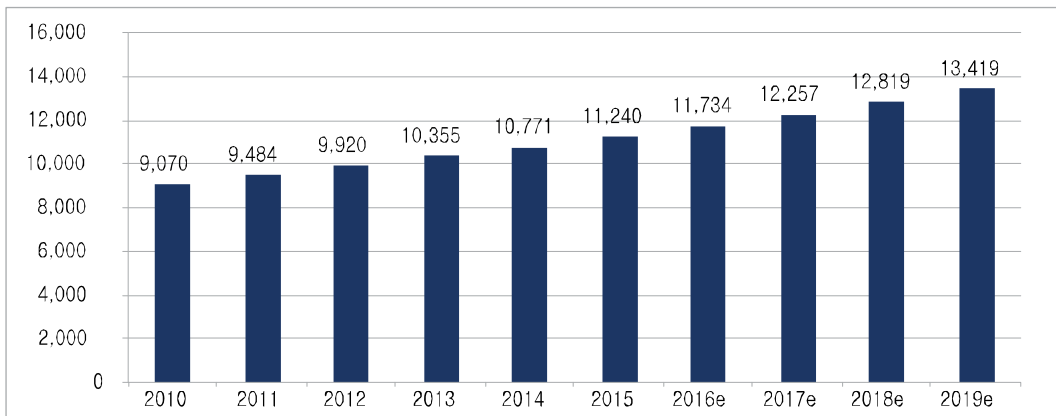
□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선진국 시장보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큰 상황

- 2015년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률은 중국 9.2%, 브라질 17.8%, 멕시코 12%, 인도 8.7% 등이 고성장률을 보였고 미국 4.3%, 영국 3.5%, 프랑스 2.4%, 그리고 한국은 2.5%의 성장률을 시현

3) 다임러 그룹의 CEO Dieter Zetsche는 2012 CES에서 '이제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ICT 융합에 있어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1〉 세계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IDC

(2) 헬스케어(Healthcare)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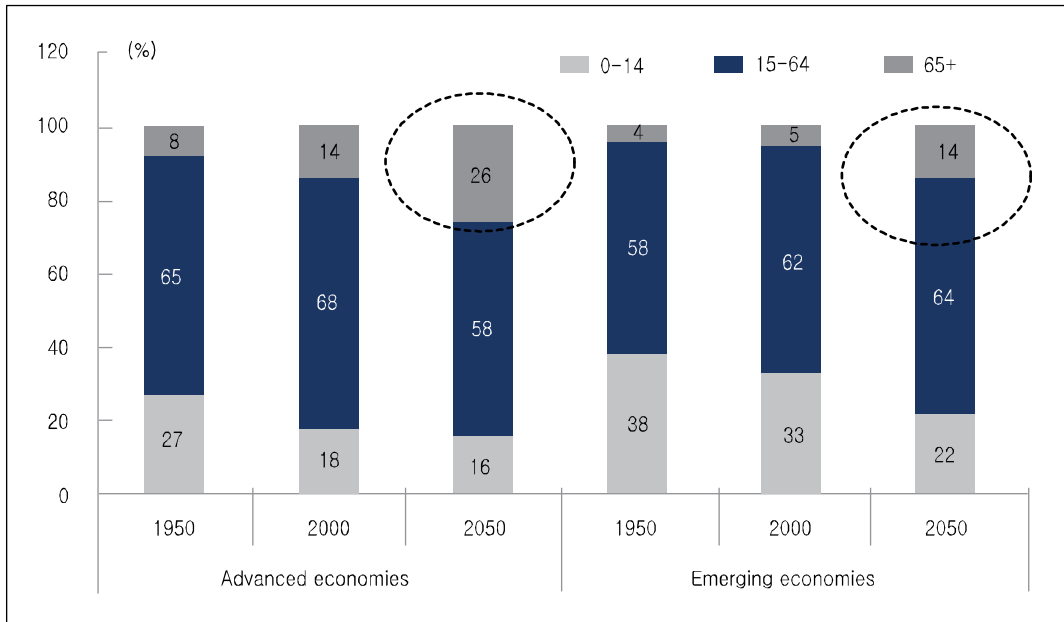
□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 동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 세계 인구 증가율은 저하되고 있지만, 평균 수명 상승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
- 2050년경 선진 및 신흥시장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각각 26%, 1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 (Mckinsey)

□ 또한 만성질환 증가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시장에서의 인구증가와 가처분소득 증가도 헬스케어 관련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식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비만,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함과 동시에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증가

〈그림 2〉 선진 및 신흥시장의 고령화 추이



자료: Mckinsey,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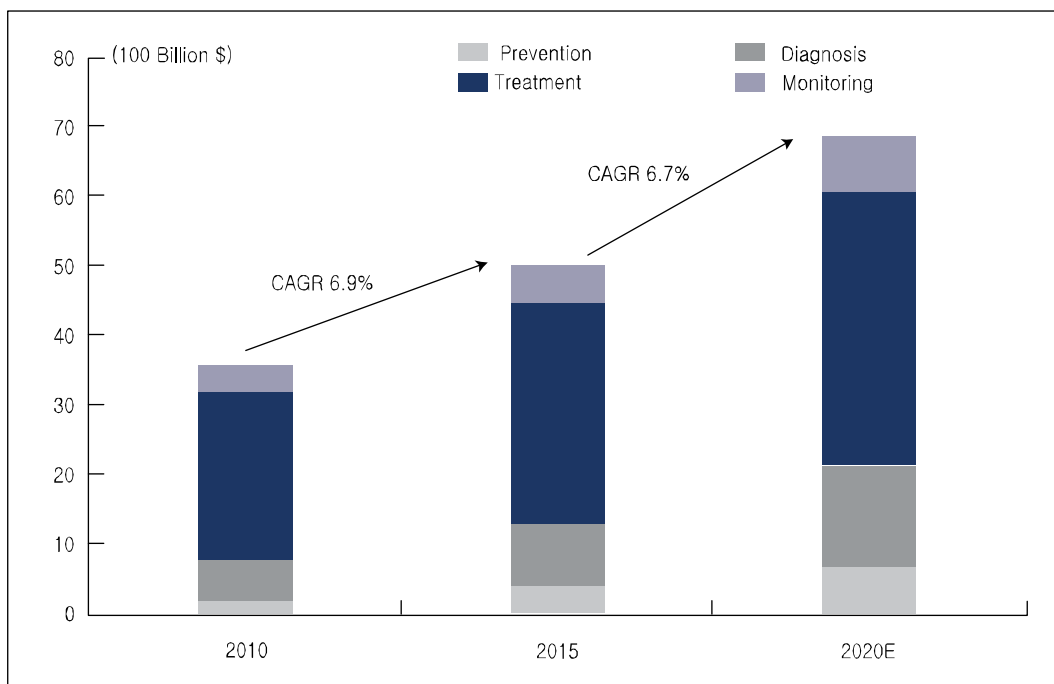
□ Mckinsey에 따르면 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 약 4.9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20년에는 약 6.8조 달러에 이를 전망(연평균 성장률 6%대 예상)

- 특히 예방, 진단과 같은 건강 사전 관리 분야가 치료와 사후 관리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전망

□ 한편 Bain & Company(2011)는 헬스케어 시장규모가 2020년에 약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다 긍정적 예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장의 상당 부분을 개발도상국과 Brics 국가들이 이끌 것으로 전망

-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연평균 개발도상국 15.2%, Brics 11.3%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4.8%) 및 서유럽(1.4%)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 시현

〈그림 3〉 세계 헬스케어 시장 전망



자료: Mckinsey,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6) 재인용

(3) 센서네트워크 산업(RFID)

□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일컬어지는 사물인터넷의 시대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sup>4)</sup>에 기반한 센서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세계 RFID 시장규모는 10.1십억 달러로 추정되며(IDTechEx) 이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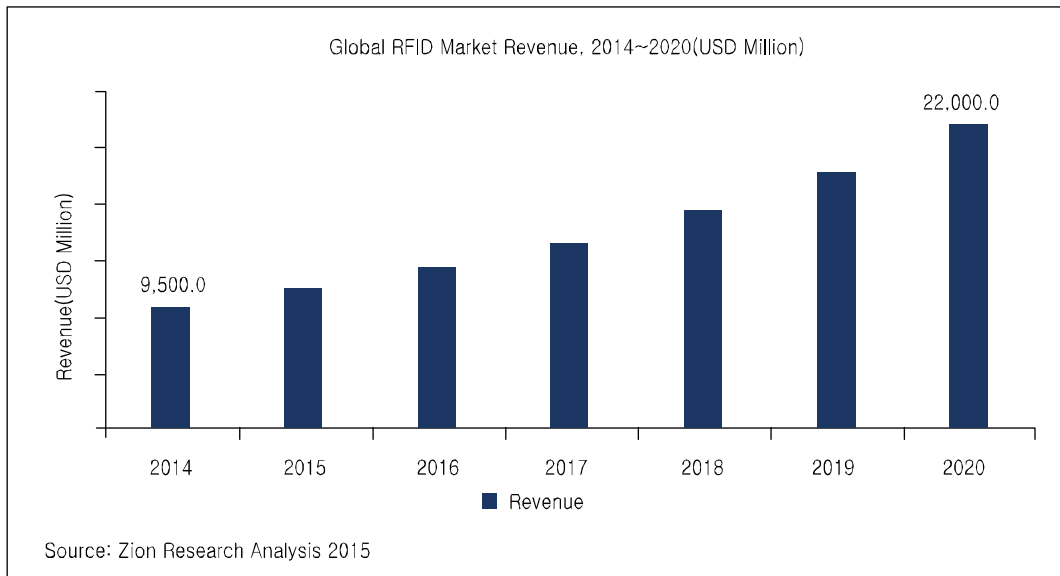
- 이는 과거 Frost & Sullivan이 예측한 8.5십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향후 RFID 시장은 지속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0년 시장규모는 22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Zion Research Analysis).

- 조사기관마다 2020년 전망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IDTechEX는 2020년 RFID 시장은 13.2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

4) 과거 정보통신부는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 가공함으로써 개체 간 정보교환, 측위, 원격처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RFID를 정의한 바 있음.

〈그림 4〉 세계 RFID 시장 규모 추이





### 3. 주요 신성장산업 기업 국제비교

#### (1) 소프트웨어 산업

□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크게 시스템SW, 응용SW, 그리고 IT서비스의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sup>5)</sup>

- 시스템SW: 운영체제(OS)와 펌웨어(컴파일러, 유틸리티 등)로 구성되며, 응용SW의 실행이나 개발을 지원하지만, 응용SW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로 공급되는 SW
- 응용SW: 운영체제 상에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SW
- IT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구축, 실제적인 운용·관리, 교육·훈련까지 모든 과정상에서 필요한 서비스

#### 가. 시스템소프트웨어

□ 시스템소프트웨어 부문의 세계 362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순으로 보면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41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19억 달러 수준

□ 자산 규모로 볼 때 top 5 기업 내에서도 상위 1, 2위 기업과 그 외 기업간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상위 2개 기업이 관련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점유

□ 매출액 기준으로 CR(Concentration Ratio)로 대표되는 시장집중도를 보면<sup>6)</sup> 시스템SW 시장은 매우 집중화된 시장

- CR3 = 74.7, CR5 = 77.9, CR10 = 82.5

□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자산 규모로 40위 수준(자산 약 4억 달러, 매출액 약 1.8억 달러)이나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의 1/10 수준에 불과하며 수익성도 상위 top 5 기업들에 비해 저조

□ 한국기업의 경영지표 상 특징으로는 유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동성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낮으며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수준의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아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

□ 시스템SW 산업 자산 규모 100위권 내 한국기업 7개, 중국기업 17개이며 미국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

5) 『2015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p.6 참고

6) 통상 시장집중도를 분석할 때는 한 국가 내 시장에서의 집중도를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집중도를 계산하였음. 개방화된 무역 환경에서는 한 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기 어렵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집중도가 의미를 가짐.

〈표 2〉 시스템SW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4,118.1	42.5	13.2	3.9
평균 매출액	1,905.3	37.3	13.1	5.0

주: 2015년 기준 362개 기업 대상

〈표 3〉 시스템SW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비율 (%)	유동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 보상 비율
1	Microsoft (미)	180,098	88,084	8.8	13.9	58.4	3	6.9	13.6	24.6
2	Oracle (미)	106,483	37,473	8.22	19.5	90.5	4.26	0.3	17.1	10
3	Symantec (미)	11,936	6,178	7.74	18	32.3	1.87	0.1	18.0	20.4
4	CA. (미)	10,857	4,039	6.43	13.6	40.2	1.28	-4.8	17.3	14.9
5	Check Point Software Tech. (이)	5,069.9	1,629.8	10.5	19.1	-	1.64	6.7	9.3	245.7
10	FireEye (미)	2,441.5	623	-15.1	-47	67.6	3.03	101.3	44.9	-
20	NetSuite (미)	1,141	741.1	-6.44	-46.2	92.7	1.26	33.9	14.3	-
40	Korea Smart Card. (한)	395.9	178.6	0.976	5.46	26.8	0.953	7.0	0.6	4.24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

#### 나. 응용(application) 소프트웨어

□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의 세계 1,172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순으로 보면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1.9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4.8억 달러 수준

□ 자산 규모 top 5 기업 내에서 1위 기업과 그 외 기업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나 1위를 제외한 다른 기업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시스템SW에 비해 크지 않아 시장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시스템SW에 비해 작은 편

- CR3 = 21.9, CR5 = 26.5, CR10 = 32.5

□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자산 기준으로 79위 (자산 494.7백만 달러 매출 388.4백만 달러)로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의 절반 정도의 수준

□ 한국기업의 경영지표는 기업규모를 제외하고는 세계 top 기업들에 비해서도 매우 우수한 상황

- ROA, ROE로 대표되는 수익성도 매우 높으며 유동성도 우수하고 최근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

□ 한편 자산 기준 100위 내 한국은 2개 회사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20개 회사가 포진하여 중국의 응용SW 경쟁력이 상당함을 보이고 있음.

〈표 4〉 응용SW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887.4	34.7	9.7	2.2
평균 매출액	480.0	31.1	11.3	3.4

주: 2015년 기준 1,172개 기업 대상

〈표 5〉 응용SW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비율 (%)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 보상 비율
1	SAP SE (독)	44,952.5	22,582.7	7.62	14.3	39.5	1.24	8.8	13.7	23.5
2	salesforce. (미)	12,770.8	6,667.2	0.418	-1.06	41.1	0.774	29.9	14.9	1.08
3	Adobe Systems Incorporated (미)	11,726.5	4,795.5	5.02	9.14	27.2	2.18	3.3	18.0	14.1
4	Dassault Systèmes (프)	6,854.7	3,083.9	7.16	12.6	28.7	2.47	12.2	18.6	87.2
5	Avaya (미)	6,792	3,960	3.85	-	NM	0.84	-7.4	8.4	0.937
10	Autodesk (미)	5,515.3	2,504.1	0.016	-17.2	91.9	1.88	2.8	33.5	0.038
20	Ansys. (미)	2,729.9	942.8	8.08	11.4	-	2.22	5.8	17.9	-
79	Com2uS (한)	494.7	368.4	24.9	35	-	7.42	84.7	-	-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단, 한국기업은 2015 통계)

다. IT서비스

□ IT서비스 부문의 세계 2,452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순으로 보면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17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12.1억 달러 수준

□ 자산 규모 top 5 기업 내에서 1위 기업과 그 외 기업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나 1위를 제외한 다른 기업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시장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CR10으로 가면 증가 폭이 큰 편

- CR3 = 15, CR5 = 17.3, CR10 = 31.6%

□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자산 기준으로 33위 (자산 5,380.6백만 달러, 매출 6,673.9백만 달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의 3배 이상 수준

□ 한국기업의 경영지표도 양호한 편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우 낮은 편(1%가 채 안 되는 수준)

- 자산 기준 100위권 내에 해당 기업이 유일한 한국 기업이며 중국기업은 6개 존재

〈표 6〉 IT서비스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1,704.4	25.9	7.22	2.1
평균 매출액	1,209.7	37.4	13.6	5.1

주: 2015년 기준 2,452개 기업 대상

〈표 7〉 IT서비스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 보상 비율
1	IBM (미)	110,495	81,741	8.91	101.1	276.6	1.24	-7.3	6.4	34.7
2	Visa (미)	54,977	14,063	12.3	23.3	53.9	4.76	9.5		NM
3	Automatic Data Processing (미)	39,899.5	11,239.9	3.07	29.4	47.4	1.1	1.1		84.7
4	FirstData (미)	34,362	7,764	2.38	-40	524.3	1.01	2.0		0.836
5	PayPal Holdings (미)	28,881	9,248	3.71	11.2	-	1.52	17.8	12.0	-
10	Accenture Holdings (아)	17,993.9	31,165.4	15.9	52.3	0.432	1.25	3.6	2.0	286.6
20	Fiserv (미)	9,340	5,254	8.79	23.9	161.4	1	5.8	1.8	7.76
33	Samsung SDS (한)	5,380.6	6,673.9	6.17	10.5	0.225	2.77	9.0	0.7	NM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

## (2) 헬스케어

□ 헬스케어 부문은 헬스케어 장비(equipment & supplies), 헬스케어솔루션, 바이오기술, 제약, 생명과학 기구·서비스(life sciences tools & services) 등의 5개 부문으로 분류

- 헬스케어솔루션은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IT 관련 서비스 및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경영 관련 전략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부문

- 바이오기술은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연구 및 개발, 바이오 기반 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부문

- 생명과학 기구·서비스는 생명과학 분야의 시약, 백신 등을 연구 및 개발, 관련 분야의 솔루션 개발 및 기자재 공급 등을 주로 하는 부문

### 가. 헬스케어 장비(equipment & supplies)

□ 헬스케어 장비 부문의 세계 1,172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순으로 보면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16.4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8.1억 달러 수준

<p>□ 자산 규모 top 5 기업 내에서 1위 기업과 그 외 기업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1위 기업은 2위 기업의 2배 수준) 2, 3위와 4, 5위 간에도 2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p> <p>□ 시장집중도도 높은 편이며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편</p> <p>- CR3 = 22.2, CR5 = 27.8, CR10 = 40.6</p> <p>□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100위권 밖에 존재하는 111위로서(자산 473.1백만 달러, 매출액 258.4</p>	<p>백만 달러)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p> <p>- 자산 기준 100위 내 한국은 0개인 반면 중국은 6개 회사가 포진</p> <p>□ 한국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양호한 편이며 특히 최근 3년 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p> <p>- 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상위 기업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p>
--	---

〈표 8〉 헬스케어 장비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1,639.2	35.8	11.4	3.3
평균 매출액	810.8	32.9	13.4	4.4

주: 2015년 기준 1,172개 기업 대상

〈표 9〉 헬스케어 장비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비율 (%)	유동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보상비율
1	Medtronic (아)	102,706	28,435	4.38	6.86	70.6	3.39	23.1	7.7	4.6
2	Danaher. (미)	48,222.2	20,563.1	5.37	11	54.2	1.27	4.1	6.0	22.5
3	Abbott Laboratories (미)	41,247	20,405	4.59	12.1	42.2	1.54	2.3	6.9	18.6
4	Zimmer Biomet Holdings (미)	27,219.5	5,997.8	5.51	1.78	116.9	3.62	10.9	4.5	5.67
5	Becton, Dickinson & Company (미)	26,046	11,217	5.31	11.2	177.3	1.25	13.7	6.2	4.83
10	Essilor International (프)	13,001.4	7,294.1	6.67	14.3	42.3	1.15	10.6	3.2	17.1
20	Nipro (일)	5,945.2	2,987.1	1.98	7.21	245.2	1.3	15.5	2.5	5.1
111	Suheung (한)	473.1	258.4	4.04	10.1	96	1.57	14.2	1.0	5.62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

나. 헬스케어솔루션

□ 헬스케어솔루션 부문의 세계 3,709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순으로 보면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9.6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5.5억 달러 수준

□ 자산 규모 top 5 기업 내에서 기업 간 격차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며 상위 그룹에서는 상향 평준화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시장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

- CR3 = 33.3, CR5 = 49.5, CR10 = 63.3

□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42위로서(자산 92.5백만 달러, 매출액 156.9백만 달러)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의 1/10 수준

- 경영지표 중 수익성이 다소 상위 그룹에 비해 낮으나 성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본 보고서의 다른 산업과는 자산 기준 100위 내 한국은 5개인 반면 중국은 2개 회사만 존재하나 이 두 회사 모두 한국기업 보다는 큰 규모의 회사

〈표 10〉 헬스케어솔루션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958.6	41.4	10.2	0.13
평균 매출액	547.9	37.4	11.4	0.13

주: 2015년 기준 3,709개 기업 대상

〈표 11〉 헬스케어솔루션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증가율(%)	연구개발비중(%)	이자보상비율
1	IMS Health Holdings, Inc. (미)	7,459	2,921	4.32	26.8	267.5	1.06	6.2	-	2.98
2	Cerner Corporation (미)	5,562	4,352.5	10.8	14.5	15.6	2.35	18.9	12.4	73.9
3	Change Healthcare Holdings, (미)	4,573.5	1,477.1	2.11	-10.2	284.5	1.59	8.6	3.1	0.845
4	Allscripts Healthcare Solutions, Inc. (미)	2,681.9	1,386.4	0.812	-0.15	44.1	1.05	-1.4	19.2	1.07
5	Agfa-Gevaert N.V. (벨)	2,608.7	2,873.7	3.81	34.3	67.5	1.8	-5.0	5.6	11.6
10	Inovalon Holdings, Inc. (미)	1,112.9	437.3	10.1	18.1	38.1	12.5	13.9	5.1	26.7
20	M3, Inc. (일)	578.2	501.6	18.1	25.5	-	2.86	36.6	0.04	193.8
42	Ezmedicom.co.,(한)	92.5	156.9	1.92	13.4	-	1.1	28.1	0.41	-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

**다. 바이오기술**

- 바이오기술 부문의 세계 999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순으로 보면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 규모는 약 16.8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약 7억 달러 수준
- 자산 규모 top 5 기업 내에서 1, 2, 3위 기업 간 격차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며 이들 기업과 4, 5위 기업 간에는 다소 격차가 존재
- 따라서 CR3의 값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산업

- CR3 = 42.4, CR5 = 53.4, CR10 = 67.6

-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18위로서(자산 2,335.4백만 달러, 매출액 512.8백만 달러)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보다 높은 수준
- 상당히 높은 순위이기는 하나 10위 기업 자산 규모의 1/5 수준
-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양호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낮지는 않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자산 기준 100위 내 한국은 4개 회사인 반면 중국은 13개 회사가 포진

**〈표 12〉 바이오기술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1,679.2	68.5	17.8	3.1
평균 매출액	701.2	19.1	8.8	1.7

주: 2015년 기준 999개 기업 대상

**〈표 13〉 바이오기술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 보상 비율
1	Amgen Inc. (미)	71,576	21,662	7.67	25.8	112.4	4.44	7.9	19.3	7.89
2	AbbVie Inc. (미)	53,050	22,859	13.8	180.9	802.8	1.5	7.7	18.7	12.4
3	Gilead Sciences Inc. (미)	51,839	32,639	32.1	103.6	116	2.5	56.3	9.2	32.3
4	Celgene Corporation (미)	27,053.4	9,256	7.43	25.7	240.8	4.78	18.9	40	8.5
5	Biogen Inc. (미)	19,504.8	10,763.8	18.5	35.6	69.6	2.6	25.5	18.7	52.5
10	Grifols, S.A. (스)	10,428.1	4,273.2	6.72	17.8	145	2.93	14.8	5.7	4.32
18	Celltrion, Inc. (한)	2,335.4	512.8	6.38	10	44	1.65	33.6	6.2	8.71
20	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 (미)	2,184.4	1,465.8	21.5	46	0.339	2.89	17.0	16.7	147.6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

**라. 제약**

- 제약 부문의 세계 1,764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54.2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약 24.2억 달러 수준
  - 자산 규모 top 5 기업 간 격차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10위권 기업들과의 격차도 다른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편
  - 즉 상당히 경쟁적인 산업이며 따라서 시장집중도가 낮은 편
- CR3 = 5.7, CR5 = 16.3, CR10 = 35.2

- 경쟁적인 시장이기는 하나 자산 기준 100위 내 한국기업은 없으며 반면 중국은 순위 내 20개 회사가 존재
-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119위로서(자산 1,597.9 백만 달러, 매출액 959.2백만 달러)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의 30% 수준
- 전반적인 경영지표는 양호하며 최근 성장률도 나쁘지 않으나 상위 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매우 낮은 수준

**〈표 14〉 제약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5,422.0	115.5	30.6	6.6
평균 매출액	2,423.0	106.2	34.3	8.1

주: 2015년 기준 1,764개 기업 대상

**〈표 15〉 제약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 보상 비율
1	Pfizer Inc. (미)	167,460	48,851	5.12	10.2	60.2	1.49	-3.7	15.7	11.4
2	GlaxoSmithKline Finance plc (영)	162,620.3	104.8	0.039	2.36	0.298	1.29	36.7		1.42
3	Allergan plc (아)	135,840.7	15,071	0.233	-5.47	55.8	1.03	75.5	15.7	0.294
4	Johnson & Johnson (미)	133,411	70,074	8.71	21.9	27.9	2.17	1.5	12.9	33.3
5	Novartis AG (스)	131,556	50,359	4.84	9.5	28.4	0.964	-1.0	18.9	15.2
10	Roche Holding AG (스)	75,671.4	50,342.1	12.8	40.4	99.8	1.19	2.0	19.0	17.5
20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일)	34,857.6	15,233.7	1.51	-4.6	33.8	1.56	5.3	21.1	12.3
119	Yuhan Corp. (한)	1,597.9	959.2	3.07	9.55	11.1	2.69	13.4	3.5	27.4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



<p><b>마. 생명과학 기구 및 서비스</b></p> <p>□ 생명과학 부문의 세계 368개 기업을 2015년 자산 규모 top 25%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14.5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약 8.1억 달러 수준</p> <p>□ 자산 규모 top 5 내에서 1위 기업과 그 외 기업 간의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며 2~5위 기업들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편</p> <p>□ 압도적 1위 기업으로 인해 CR3가 매우 높으며 전반적으로 10위 권 내 격차가 크지 않아 시장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p>	<p>- CR3 = 31, CR5 = 39, CR10 = 54</p> <p>□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69위로서(자산 152.6 백만 달러, 매출액 86.3 백만 달러)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의 1/10의 낮은 수준</p> <p>- 전반적인 경영지표는 양호하고 성장성도 높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매우 낮은 수준</p> <p>- 100위권 내 한국기업은 2개사인 반면 중국기업은 7개사가 포진</p>
--	--

〈표 16〉 생명과학 기구·서비스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 분위 (top 25%)	2 분위 (top 26-50%)	3 분위 (top 51-75%)	4 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1,447.0	39.6	13.7	4.0
평균 매출액	810.3	38.0	15.3	5.2

주: 2015년 368개 기업 대상

〈표 17〉 생명과학 기구·서비스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 보상 비율
1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미)	40,889	16,965.4	3.7	9.45	58.7	1.38	11.4	4.1	5.87
2	Agilent Technologies, Inc. (미)	7,302	4,040	4.79	11.3	42.8	3.59	-15.2	7.9	8.35
3	Lonza Group Ltd (스)	6,240.4	3,798.4	4.91	13	93.1	1.17	-0.9	5.1	5.72
4	VWR Corporation (미)	4,793.8	4,318.8	4.17	11.5	148.8	1.51	1.5		3.17
5	Waters Corporation (미)	4,268.7	2,042.3	8.88	23.7	81	5.7	3.5	5.8	16
10	Bio-Rad Laboratories, Inc. (미)	3,711.5	2,019.4	2.89	4.84	17.5	4.03	-0.7	9.6	7.52
20	ICON Public Limited Company (아)	1,718.9	1,575	10.8	28	45.9	1.51	12.4		70.5
69	ORIENT BIO Inc. (한)	152.6	86.3	0.883	-2.19	67.2	1.32	7.7	0.6	0.899
81	Macrogen Inc. (한)	114.1	67.6	2.08	13.9	38.5	3.39	22.8	5.3	4.99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3) 매출액 증가율은 연도별 증가율의 최근 3년 평균

(3) 센서네트워크

- RFID 부문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 32개 정도로 상당히 과점시장이며 2015년 자산 규모 순으로 보면 top 25%의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4.1억 달러,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2.3억 달러 수준
- 자산 규모 top 5 내 기업들 간 격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작으며 사실상 한, 중, 일, 대만의 4개국 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 전체 32개 기업 중 한국 4개사, 대만 3개사, 일본 1개사, 중국은 6개사

- 따라서 시장집중도도 매우 높은 편이며 CR10으로 확대하면 85%를 상회
  - CR3 = 39.1, CR5 =59.8, CR10 = 85.5
-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은 자산 기준으로 5위 (자산 418.4백만 달러, 매출 358.6백만 달러)이며 자산 기준 1분위 평균 자산보다 높은 수준
  - 전반적인 경영지표는 양호하나 부채비율이 동 업종 타국 기업보다 높으며 이는 이 업종의 다른 한국기업에서도 보이는 현상

〈표 18〉 RFID 부문 자산 기준 분위별 기업 규모

	1분위 (top 25%)	2분위 (top 26~50%)	3분위 (top 51~75%)	4분위 (top 76~100%)
평균 자산액	410.6	71.2	13.3	3.9
평균 매출액	226.5	59.7	11.1	4.6

주: 2015년 기준 32개 기업 대상

〈표 19〉 RFID 부문 top 20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순위	회사명	총자산	매출액	ROA	ROE	부채비율 (%)	유동비율	매출액 증가율 (%)	연구개발 비중(%)	이자보상비율
1	Shenzhen Tatfook Technology (중)	669.9	317.4	0.782	3.81	44.4	0.878	-15.9	6.4	0.998
2	Denki Kogyo (일)	507.1	395.9	3.2	4.76	3.36	3.87	1.47	2.4	82.6
3	Wutong Holding Group (중)	471	231.2	4.79	9.92	9.82	1.8	91.4	3.9	24.1
4	Guangdong Shenglu Telecommunication Tech. (중)	452.1	140.1	3.48	6.87	2.98	2.95	73	4.3	49.3
5	ACE Technologies Corp (한)	418.4	358.6	2.01	8.04	139.5	1.06	-1.3	6.6	1.92
7	Kmw (한)	272.4	186.8	-9.16	-59.7	272.4	0.849	4.32	16.3	-
10	Allwin Telecommunication (중)	130.8	60	0.132	0.715	3.5	4.33	-11.1	4.2	1.09
11	Kocom Co., Ltd. (한)	93.5	94.1	5.7	8.81	-	3	6.97	3.7	45.5
13	i-KAIST Lab Co., Ltd. (한)	38.9	33.3	-8.11	-108.3	660.7	0.26	-33.3	4.4	-
20	Jade Solutions Limited (영)	11.7	18	7.22	28.5	7.83	2.94	NM		44.5

주: 1) 2015년 기준 자산 순위 2)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 4.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1) 상위그룹(top 20) 내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필요

□ 대부분의 신성장산업에서 100대 기업에 포함되어야 의미 있는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상황

- 상위 25%(1분위) 기업의 규모와 그 외 기업 간의 규모는 매우 크며 그 중에서도 100위권 내외 간의 격차도 큰 상황

□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월이 빈번하게 확인되는 상황이며 신성장산업에서도 100위권 내 중국기업의 수는 한국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 기업의 수와 경쟁력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높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

□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중국기업들의 약진은 한국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헬스케어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00대 기업에 중국기업의 수가 많은 상황

□ 중국과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우세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top 20 내의 global player가 필요

〈표 20〉 산업별 100대 기업 내 국가 별 기업 수

산업 분류	100위권 내 주요 국가의 기업 수
시스템SW	한국(7), 중국(17), 미국(28), 일본(11)
응용SW	한국(2), 중국(20), 미국(47), 일본(3), 영국(5)
IT서비스	한국(1), 중국(7), 미국(45), 일본(6), 프랑스(7)
헬스케어 장비	한국(0), 중국(6), 미국(40), 일본(12), 이탈리아(6)
헬스케어 솔루션	한국(5), 중국(2), 미국(35), 일본(7), 프랑스(11)
바이오 기술	한국(4), 중국(13), 미국(51), 일본(0), 프랑스(6)
제약	한국(0), 중국(20), 미국(10), 일본(11), 영국(10), 독일(8)
생명과학 기구 및 서비스	한국(2), 중국(7), 미국(32), 일본(5), 영국(13), 프랑스(7)

주: 2015년 기준, 괄호 안은 기업 수

□ 따라서 기업규모에 의거하여 기업성장을 막는 일부 IT 산업 규제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sup>7)</sup> - 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사업 실적이 부재하여 대기업의 해외 공공 IT 사업 진출에 장애로 작용(입찰 시 공공 IT 사업 실적 요구)

□ 한편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조직, 영업망 등의 경영요소보다는 기술적 노하우가 경쟁력의 핵심이므로 M&A를 통해 단시일 내 기술적 장벽을 넘을 수 있고 지적재산권 확보도 가능

- 2015년 국내기업의 10대 기업결합 건의 주 업종은 유통, 건설, 금융 등인 반면 해외의 경우 10대 기업결합 건의 주 업종은 제약, 의료기기, 항공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였음.<sup>8)</sup>

- 즉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M&A 실적이 부진함을 의미

□ 따라서 M&A 등을 통한 성장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충이 필요

□ 특히 기술력과 향후 먹거리가 될 만한 지적자산이 있는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기술격차를 줄이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단시간 내에 확보하는 해외 M&A의 활성화가 필요

□ 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M&A는 해외 기업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황

- 2015년 기준 국내 기업이 추진한 M&A 중 해외 M&A 비중은 건수로는 2.62%, 금액으로는 0.36%에 불과(<표 21> 참조)

- 금액 기준으로는 해외 M&A 비중이 하락 추세

- 해외의 경우 해외 M&A 비중은 평균 30% 이상

□ 반면 경쟁상대인 중국은 해외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중국의 해외 M&A는 건수에 있어 2013년보다 55.1% 증가(6,899건)하였고 금액은 55.4% 증가(2,621억 달러)<sup>9)</sup>

- 이 중 하이테크와 헬스케어 분야가 중국의 M&A 건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년에 비해 각각 89.6%, 77.2% 증가

□ 특히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CIC, 자산 660조 원)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인 해외 M&A를 추진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8) 보도자료, '2015년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26

9) '주목 받는 중국의 M&A 동향',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6. 10

〈표 21〉 국내 기업의 M&A 동향

(단위: 건, 조 원)

구 분		국내 기업의 M&A	
		국내-국내(IN-IN)	국내-외국(IN-OUT)
2013	건수	434	17
	금액	18.1	0.5
2014	건수	443	8
	금액	37.8	0.4
2015	건수	520	14
	금액	56.1	0.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해외 M&A에 있어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강화가 필요

- 모험자본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금융시장에서만 해외 M&A 관련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금여력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국내 금융시장 여건 상 해외 M&A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적 금융의 역할 필요

□ 현재 해외기업 인수를 위해 국민연금과 국내 대기업이 출자한 1조원 규모의 'Copa펀드'(Corporation Partnership Fund)가 조성(2015년)되어 있으나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

- 국내 기업의 전체 M&A 중 해외 M&A 비중 목표를 우선 10% 정도로 잡고(장기적으로는 해외와 유사하게 30%를 목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조성이 필요(최소한 5조 원 규모로 점차 확대할 필요)
-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기금의 적극적 투자 확대가 필요

(2) R&D 투자 확대 시급

□ 기술적 우위 없이는 신성장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의 R&D 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황

- 주요 신성장산업에서의 한국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

□ 산업별로 100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과 해당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의 R&D 투자 비중 간에는 매우 큰 격차가 존재 (〈표 22〉 참조)

〈표 22〉 부문별 R&amp;D 비중

	시스템SW	응용SW	IT서비스	헬스케어 장비
산업 평균	13.2	15.6	3.1	6.0
한국 기업	0.6	4.0	0.7	1.0
	헬스케어솔루션	바이오기술	제약	생명과학 기구·서비스
산업 평균	19.4	219.1	10.3	376.0
한국 기업	0.41	6.2	3.5	0.6

주: 1) 산업 평균은 각 산업의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구하였으며 R&D 비중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은 평균 계산에서 제외  
2) 한국기업의 값은 해당 산업에서 자산 기준 가장 높은 순위의 한국기업

□ 특히 헬스케어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해외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바이오, 생명과학 등의 부문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높은 R&D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100% 이상)

□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신성장산업에서의 적극적 R&D 투자를 유도할 필요

-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없이는 신성장산업에서 뒤처진 현재의 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2014년부터 축소되어 온 R&D 세제지원을 최소한 2013년 수준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중소기업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

- R&D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율 3~6%,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 등의 수준으로 복귀

- 손금, 세액공제·감면 등에 치중한 '소극적' R&D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 세제 지원을 하는 특허박스 도입 검토<sup>10)</sup>

- R&D 지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세제 감면(예를 들어, 지적재산 수입에 대해 50%를 초과세한 후, 10% 세율 적용)<sup>11)</sup>

10) 특허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2016,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11) 특허박스를 도입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경우 지적재산 수입에 대해 10~15% 세율 적용(이들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34%)

〈표 23〉 최근 R&D 세제 변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R&D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	×		
R&D 비용 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당기분 방식)	3~6%	3~4%	2~3%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10%	3·5·10%		1·3·6%

**(3) 시장집중도가 낮은 산업에서의 투자 확대**

□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낮은 부문에서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가령 시스템SW와 같이 CR3가 거의 75%에 달하는 부문에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 반면 응용SW의 경우 시스템SW와는 달리 CR10도 약 32% 수준이므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확보 여지가 존재
- 즉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전략적으로 응용SW와 IT서비스 부문에서의 성장을 우선시 할 필요

□ 이미 한국기업이 상위권 수준에 도달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아니라면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상품의 다양성이 높아 시장독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 보도자료, 2016. 2. 26
- 정기택, 헬스케어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경희대 산학협력단, 2014
- 강정화,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및 이슈, 한국수출입은행, 2016
- 박정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4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2015
-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2015
- 양희중·임준민·김성훈, RFID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005
- 이선화, 최근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이슈와 시사점, 산업은행, 2016
- 이승호, 헬스케어 산업, 우리투자증권, 2013
- 이정, 사물인터넷, 새로운 세상의 시작, 유진투자증권, 2014
- 이태규,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 전자부품연구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장동향, 2013
- 피델리티 자산운용, 헬스케어 산업의 무한한 성장잠재력, 2013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외 헬스케어 산업 현황과 전망, 2016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2016. 5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2015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 2015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목 받는 중국의 M&A 동향, 주간 기술동향, 2015. 6. Peter Harrop, The global market for RFID 2010-2020, IDTechEX Ltd.
- Global Software Leaders Key players & market trends, 2010